

病없는 노부모 「강제入院」 많다

간병인에 맡기고 주말여행

“현대판 고려장” 임종 혼자맞기도

연륜한 부모를 뚜렷한 병이 없는데도 잠깐간 병원 에 입원시키거나 간병인을 고용 돌보게 하는 젊은 자식들이 늘고 있다. 이같은 현상은 맞벌이 부부가 늘고 가정의 해가죽화하면서 노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

모자식간 전횡의 실종을 개탄하는 소리가 높다. 서울순천향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(60·여)는 “최근 노부모를 뚜렷한 질병이 없는 데도 5개월이상 잠깐간 입원시킨 뒤 부모부양을 고의로 피한 경우가 있어 병

원종이 이환자를 강제 퇴원시키기도 했다”며 “이처럼 무관심한 자식들이 그 노인들을 집에서 과연 제대로 모실지 걱정이 앞선다”고 안타까워했다.

상계백병원의 간병인 成모씨(43·여)는 “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된 할아버지를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킨 뒤 두병은 오지 않는채 입원비와 간병료를 은란인으로만 속단해 이 할아버지의



露店商의 현행 서울 시내 포장마차 전면철거발원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중區 노점상연합회 소속 회원 1백여명이 4일 오전 중대문로중앙로에서 현행노점상을 벌여 논의를 끝냈다. <朴耕模>

임종을 돌보지 않는 자식 지켜본 적도 없다”면서 “최근 들어서는 젊은 자식들이 평안보다는 일요일을 휴일에 노부모간병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자식들이 여가를 즐기게 해 놓는 부모를 내팽개치는 한심한 작태를 자주 본다”고 말했다.

한국간병인복지회 崔致燮(40)씨는 “노년은 자식의 효도와 가족들의 정이 필요한 노부모를 간병인에게 맡겨 놓고 여행을 가는 등 여가를 즐기는 젊은 부모들이 적지 않다”고 지적, 이는 자식의 도리가 지도도로 해결하려는 물질만능사회의 서늘한 병리 현상이자 “현대판 고려장”이라고 개탄했다.